

중국의 미국 국제정치 이론의 수용과 변용

발표: 모준영(고려대)

토론: 신영환(고려대)

중국의 미국 국제정치이론의 수용과 변용

모준영*

< 목 차 >

1. 서론
2. 중국에서의 이론
3. 미국 국제정치이론의 수용 과정
4. 이론 개발과 주요 이론들
5. 결론

1. 서론

국제정치학은 다른 학문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갖고 있다. 서구에서는 대체적으로 1차 세계대전 후에 시작되었다는 데 동의한다. 실제로 1919년 영국의 애버리스트위스(Aberystwyth) 대학에 국제정치학과가 세계 최초로 만들어졌다는 점도 이를 잘 보여준다. 그리고 영국에서 태동했지만 학문 발전이 본격화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였다. 이에 국제정치학은 미국적 사회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Hoffmann 1987).

중국에서는 국제정치학이 서구 중심의 가치와, 문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독자적인 학문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한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다. 물론 중국에서 국제정치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은 춘추전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세기 중반 서구의 제국주의와 접촉이 있는 후라고 할 수 있다(Chan 1999).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에는 1950년대 초에 이르러서야 인민대학에 외교학과가 처음으로 개설되었다. 하지만 학술적인 국제정치이론을 다루기보다는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학술적인 글은 발표된 것이 거의 없었다. 그리고 실제 국제정치학과가 확대되고 학문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한 것은 1978년 개혁·개방이후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중국에서의 국제정치학의 발전이란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국제정치학자들은 중국의 위상 변화에 따라 대외정책의 연속성과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고, 한편으로, 국제적 행위자로서 중국의 새로운 정체성과 세계 정치에서 중국의 전략적 역할을 정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적 특성을 가진 이론 구성’, 또는 ‘중국 학파’라는 이름으로 중국적 관점에서 국제 시스템을 개념화하고 해석하며 미래 세계 질서에 대한 비전을 담은 해석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에 중국 외교정책 싱크탱크들은 최근 글로벌 시스템의 변화와 발전 동향은 물론 중국 내외의 인식과 이미지, 그리고 전략적 계산으로 외부 세계가 중국에 부여한 역할까지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에서의 국제정치학을 검토하는 것은 중국 내 존재하는 독특한 이론 개발 방식 때문에 쉽지 않은 측면이

*이 글은 미완성의 발표용 원고입니다. 전재나 인용을 금합니다.

**고려대학교, 연구원, augustine227@hanmail.net

있다. 가령 김(Samuel Kim)이 지적하는 것처럼 “중국의 국제관계학자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중국의 민족성(national identity) 등의 요소들을 포괄하는 이론을 만들어서 변화하는 세계 상황의 현실에 맞춰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국에서는 국제정치 분야가 교육과 연구로 나뉘는 문제가 있다. 왕지스에 따르면 “이론적 연구는 통상 실제 정부 정책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학교 기반의 학자들이 하고 있고, 정부 소속 연구기관들은 갖고 있는 정부 자료들을 정책 지향 연구와 지역 연구에 사용하고 정책결정에 대한 접근도 용이하다.”(Chan 1999, 8)

이에 중국의 국제정치이론의 발전을 정확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그렇기에 본 글에서는 중국에서의 이론의 내용, 서구 국제정치이론의 수용, 중국 내에서의 이론 개발 과정, 그리고 현재 주목받고 있는 몇몇 주요 이론들을 중심으로 개괄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 본 글은 열거한 순서대로 2장에서는 중국에서의 이론, 3장에서는 서구 국제정치이론의 수용 과정, 4장에서는 이론 개발과 현재 주목받고 있는 주요 이론들을 소개하고, 5장에서 간략한 평가를 할 것이다.

2. 중국에서의 이론

중국 내 국제정치이론의 기능에 대한 고찰은 중국의 인식적 공동체들 사이에서 ‘이론’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떻게 이해되는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진다. 또한 일반적인 국제정치이론에 속하는 의미들과 외부 관찰자들이 중국 국제관계에 속하는 특별한 의미들, 그리고 중국 내 논쟁에서 발전되고 사용된 의미들은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이론에 관한 중국의 문헌들을 검토해 보면, 통일된 정의가 없음을 알게 된다. 일반적으로, 중-소 협력과 이념적 근접성의 초기 단계에서 수입된 마르크스주의적 이해는 여전히 많은 국제정치 간행물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제정치 이론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공식적인’ 중국의 (마르크스적) 이해는 (정치) 과정의 객관적 법칙을 반영한 개념과 원칙의 체계라는 것이다. 국제정치이론의 주요 기능은 정치적 행동을 지도하는 것이다(Wang 1994, 482). 이러한 정의는 마오쩌둥 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다. 마오쩌둥은 자신의 ‘실천론’과 ‘모순론’에서 변증법적 유물론에 기초한 이론과 실제 사이의 순환론적 상호관계를 제안했다. 어떤 이론이든 정치 관행에서 추론하고 정치 관행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마오쩌둥에 따르면, ‘이론’은 학계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들 정치 이론의 주요 목적은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세계혁명을 실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Chan 1997, 59).

이에 오늘날 국제정치에 대한 ‘중국’ 이론 개발 시도에는 두 가지 인지적 원천, 즉 중국화된 마르크스주의와 (재창조된) 유교가 자리 잡고 있다. 얼핏 보면 마르크스-레닌주의가 마오쩌둥 사상으로 변화된 20세기 초, 또는 진 이전의 ‘국가 간’ 관계에 대해 생각하고 확장시켰던 제자백가시대로 회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마오쩌둥주의 초기 인습타파와 혁신적이고 독립적인 연구 접근과 이론을 정립하려던 중국 학자들의 시도에 비추어보면 상당히 역설적으로 보인다. 유교는 중국 공산주의가 극복해야 하는 대상에 속했고, 서구로부터 유입된 마르크스주의는 뚜렷한 ‘중국’ 연구 전통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의 국제관계이론 논의는 포스트모던, 식민지 이후의 해체와 국제관계이론 구축에 종사하는 국제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한 관심의 배경은 대체로 이론이 과거의 사건을 분석하고, 추세를 예측하며, 규범적인 방법으로 정치적 행동을 지도하거나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 국제정치’와 관련해 아차리아와 부잔(Acharya and Buzan)은 국제 학계에서 이론으로 인정되거나 선행 연구자들에 의해서 구분된 국제정치 개념 규정이 이론에 기여하는 것으로 국제정치에 대한 체계적이고 압축적인 접근을 대표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국제정치의 역사

적 이론과 관행은 약간의 예외를 제하고는 대체로 영어권 국제관계 공동체에서 무시되어 왔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지식의 전통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에서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이론 수립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중국의 이론은 그와 같은 점으로 인해 서구에서 말하는 이론과의 차이점을 보여 왔다. 우선 서구의 학술이론이 지식의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중국의 ‘학술’ 이론이란 정책 성과를 이끄는 데 목적을 두고 개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서구의 이론이 복수로 존재한다고 하면, 중국의 이론은 중국 사회주의의 시각에 의해 획일화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셋째로 국제적 사건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학계에서 담당하는 서구와 달리 중국에서는 정치적 평가를 정부 관료가 담당하고 학계는 공식 라인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서구에서는 학술적 작업의 결과와 정책적 집행 간의 차이가 분명한데 반해, 중국에서는 학술적 작업이 정부 정책의 실행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오늘날 변화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중국의 국제정치 토론에서 마르크스주의 용어와 철학이 주변으로 밀려난 것처럼 보인다. 즉 1980년대 중국내 국제관계 연구의 현대화에 따라 영미 국제정치 연구의 대표작들이 중국어로 번역되었고, 중국 국제정치계는 일반적으로 ‘서양’(주로 미국)의 방법과 이론을 보편적인 표준으로 채택했던 것이다(Yu et al 1997, 11). 그 과정에서 마르크스 국제관계 접근법은 주변으로 밀려났던 것이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공식 외교정치 담론은 마르크스주의 인식론에서 깊은 영감을 받은 마오주의 시대의 외교 정책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최근의 발전과 중국 정치의 주요 방향을 조사하는 학술 논문은 ‘모순’이나 ‘시대 특징’과 같은 중국식 마르크스주의의 공식 용어들을 그들의 분석에 통합한다(Chen 2012, 136-138).

게다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대학이나 싱크탱크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오주의 시대에 사회화되었고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노선을 따라 훈련되었기 때문에, ‘서구’의 국제관계 연구가 분석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연구 틀을 대체한 것은 아니었다. 중국 국제관계 학자들의 젊은 세대들은 이제 종종 신현실주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만, 그들의 연구는 동시에 마오주의-마르크스주의 개념의 잔재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는다. 마르크스주의 국제관계 접근 방식은 세계 권력의 패권주의와 불평등 비판에 나서는 세계정치에 대한 특정 시각을 제공해 미국 패권을 규탄하고 ‘국제관계 민주화’를 요구하는 중국 논문의 전반적인 경향으로 나타난다.

그렇기에 21세기에도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대 대표론, 과학 발전의 개념과 함께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중국 당국가의 한 축이 되고 있으며, 이 모든 개념들은 당헌당규에 기록되어 있다. 마르크스주의는 공식적인 국가 교리이자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체제 정체성의 구성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다.

국가 교리에 영감을 받은 이러한 ‘이론’에 대한 현실적 정의와 달리, 상하이 푸단(复旦)대학 소속의 중국정치학자들은 “이론은 국제 문제의 전향적 인식이나 예측력을 증진시키고 지식을 축적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Chan 1998, 16)고 주장한다. 마오쩌둥 시대 이후의 중국의 국제정치이론 연구 분야는 서로 다른 그룹이나 학자들의 네트워크의 학력을 반영하여 더욱 세분화되고 복수화되었다. 미국 또는 유럽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종종 그들의 외국 모교에 사용되는 이론들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이론 혁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포스트모던적이고 비판적인 국제관계 접근법의 영향을 받는다.

이에 오늘날에는 조금 변화된 이론들이 등장하고 있다.

3. 미국 국제정치이론의 수용 과정

국제정치이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개혁·개방 이후 국제정치학 분야가 본격화된 것과 시기를 같이 한다. 중국의 국제정치이론은 자체의 학문이라기보다는 서구에서 전파해 들어온 것이었다. 그렇기에 초기의 ‘이론’의 범주에 속하는 논문들은 종종 ‘서구’에서의 이론 논쟁에 대한 논문을 개관한 것이었다(Qin 2009). 개혁개방 이후 중국

의 국제정치이론이 발전해 온 역사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옌쉐통(阎学通)의 경우 개혁개방 40년이 되는 2018년 12월에 발표한 글에서 중국의 국제관계 학술발전이 3단계에 걸쳐 발전해 왔다고 한 바 있다. 1978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의 전문화 단계,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학술 혁신 단계, 그리고 그 이후 현재까지 연구방법 자각과 체계적 이론혁신 단계를 거치고 있다는 것이다(阎学通 2018).

3.1 전문화 단계

전문화로 가는 단계는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이었고, 이전에는 국제관계 연구자가 국제관계 전문고등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국제관계 학술연구에 대한 지식이 적었고 학술지도, 이론저술도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비로소 국제 관계 연구 분야에서 학술활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1978년 중국 지도부의 개혁·개방 정책 채택 이후 대외접촉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정치 분야에 대한 전문성가가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덩샤오핑은 국제정치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각 대학은 세계정치경제와 국제정치 등의 과목이 개설되었다. 일례로 1978년 베이징대학(北京大學)이 첫 국제관계전문대학원생을 모집했고, 1980년 첫 국제관계학회(원제 '중국국제관계사연구회')를 열었으며, 1981년 첫 국제관계논리 소개 글, 1993년 첫 국제관계학과 기술직명, 1985년 국제관계이론 소개 저서 출간, 1987년 국제관계논리 심포지엄, 1988년 중국외교정책 저서 발간, 1989년 첫 국제관계전문교재 출간 등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시기 중국의 국제정치이론 연구를 정리하면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보였다(김홍규 2010, 8-9). 우선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이 강하게 남아 있어, 새로운 이론적 공백을 마르크스-레닌주의적 국제정치이론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 내 새로운 국제정세의 변화와 그에 따른 자각을 바탕으로 중국인 국제정치이론 정립에 대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특히 1987년 개최된 상하이 국제관계이론 토론회에서 중국 특색의 국제관계이론 수립이 논쟁의 주제가 되기도 했다. 셋째, 서구의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소개가 본격화되었다는 것이다. 최초의 논문은 천러민(陳樂民)이 <국제문제연구>에 게재한 “당대서방국제관계이론 간략 소개”였다. 이 식에 니스쑹(柳世雄)과 진잉충(金應忠)이 쓴 <당대미국국제관계이론 선집>이 출간되었는데, 책에는 모겐소(Hans J. Morgenthau), 호프만(Stanley Hoffmann), 코헨(Robert Keohane), 나이(Joseph Nye), 왈츠(Kenneth Waltz), 도이취(Karl Deutsch) 등의 글이 포함되어 있었다(김홍규 2010).

이 시기 중국 국제정치이론은 이론적 분석을 도입하고 연구하는 초기단계였다고 할 수 있고, 옌쉐통의 표현처럼 아마추어에서 전문가가 되어 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3.2 학술 혁신 단계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소련의 해체와 동구권 체제 변화에 따른 냉전 종식, 단일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등장, 세계화의 진전 등 중국이 새롭게 맞닥뜨린 국제정치 현안들은 국제정치 발전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이해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의 정치학계에서 국제정치, 국제관계, 외교 등의 용어가 보편화되었다. 이전 시기에 개설되기 시작한 학과나 대학원이 증설되었고, 관련 강좌가 급증했다.

이 시기 중국은 초보적인 수준이나마 새로이 도입한 국제정치이론들을 분석틀로 국제정치 현상을 분석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특히 인민대학의 국제정치학과는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까지 서방의 주요 국제관계 저서들을 번역하여 출판하였다. 중국 인민공안대학, 상해인민출판사에서도 국제정치 이론과 관련된 번역서들이 나왔다. 코헨과 나이의 Power and Interdependence, 왈츠의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길핀(Robert Gilpin)의 War & Change in

World Politics, 웬트(Alexander Wendt)의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등 오늘날에도 사용되는 대표적인 국제정치 교재들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왔다.

아울러 이 시기에는 중국의 국제정치학자들이 서구 이론을 응용해 국제관계 현상들을 분석하는 저술들을 출판하기 시작했다. 진잉충과 니스송이 <국제관계이론 비교연구>를, 왕이저우가 <서방국제정치학: 역사와 이론> 등을 썼다. 또한 이 시기에는 국제정치 관련 논문들이 급증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미국의 국제정치학의 주류 패러다임에 해당하는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등의 이론이 본격적으로 소개되었다. 이는 중국 국제정치학에 미국의 국제정치학이 상당한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중국 내에도 이 패러다임에 따른 분파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는 중국 내에서도 중국 고유의 국제정치 이론 수립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중국 특색의 국제 정치 연구에 대한 국내 비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朱峰, 김홍규 2010 재인용). 첫째, 중국 특색이란 개념은 학술적이라기보다는 이념적인 개념이다. 둘째, 특색의 형성은 선형적으로 전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론 자체의 발전과 성숙에 달려 있다. 셋째, 학술연구의 중심은 문제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이지, 반드시 ‘특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넷째, 중국 학자의 연구는 그 자체로 중국 특색을 지니는 것이다. 다섯째, 중국 특색을 강조하다보면 이론의 실용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학술적 성격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특색의 국제정치 이론 수립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3.3. 연구방법 자각과 체계적 이론 혁신 단계

중국 특색의 국제정치이론 건설은 대체로 두 가지 역사적 단계를 거쳤다고 할 수 있다. 첫 단계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1987년 상하이에서 개최된 전국 국제정치이론 세미나가 상징적인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2000년에 시작되었는데, 북경대와 푸단대에서 국제관계이론을 제시한 중국학파가 대표적이다. 지식구축의 구체적인 실천 각도에서 볼 때, 둘이 현저하게 다르지만, 일부 측면에서는 높은 유사성도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점과 서로 연관되어, 중국의 국제정치이론을 발전시켰다.

중국 특색의 국제정치이론 구축의 두 단계는 그 차이점이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이론 건설에서 따르는 지도사상이 다르다는 것이다. 앞 단계에서는 중국 특색 마르크스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하여 연구의 정치적 방향을 강조하였으며, 다음 단계에서는 사회과학 지식의 생성과정에 관한 서양의 연구를 빌려 연구의 학술 규범을 강조하였다. 둘째, 이론적 지식구축 방식에서 다르다. 전 단계는 강한 이데올로기 자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로 마르크스레닌주의 경전과 중국 지도자들의 연설에서 중국 이론의 버팀목을 찾았다. 후자는 강한 학문적 자각을 가지고 있으며, 더 많은 중국 역사 경험에서 중국 이론 건설의 영감을 찾는다. 셋째, 둘의 이론적 건설 목표가 다르다. 이전 단계에서는 고도의 정치화된 중국 국제 관계 이론을 목표로 하였는데, 그 목적은 중국 이론 연구의 독특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후자는 고도로 학술화된 중국 국제 관계 이론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중국의 경험에 입각한 것이었지만 서양 사회의 과학적 성과를 어느 정도 참고하여 중국 이론의 중국 이외의 학술계에 받아들여지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중국 특색의 국제정치이론 건설의 두 단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연속성을 보여준다. 우선 국제관계 논리의 성격과 기능에 대한 인식에서 공통성이 있다. 1단계나 2단계 중국학자들은 국제정치이론을 가치 지향과 동떨어진 보편적 지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阎学通 2006), 국제정치이론의 생성과 해당국가의 대국 신분을 연계하는 경향이 있으며, 국제정치이론이 국익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론을 학문공동체 내 우위나 강력한 학술적 언어권 획득의 도구로 인식한다. 둘째, 중국 이론 구축의 구체적 실천에 공통성이 있다. 단계별 학자들이 이론적 지식 구축 모델을 채택했지만, 구축 실천에서는 중국 중심주의적 성향, 이데올로기적 용어의 잔재, 공통된 현실정치적 고려가

어느 정도 표출되고 있다.

4. 이론 개발과 주요 이론들

4.1. 이론 개발의 배경

중국 내 국제관계 이론에는 서구중심주의 현상이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 고전적 현실주의 이론, 자유주의 이론이든 혹은 최근 몇 년 동안의 구성주의 이론이든 간에 관심을 갖는 연구 문제는 대부분 서구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이론 배후의 철학 사상은 서양 연원을 갖고 있었으며, 검증에 사용되는 사례와 데이터도 대부분 서양의 출처를 위주로 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서양의 앞 이론에서 학문적 혁신은 서구 중심주의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있고, 일부 이론은 끊임없이 세분화되면서 종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문적 유파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중국의 국제정치 연구의 전반적인 학술 수준이 급성장하면서 중국 특색의 이론들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에 친야칭은 ‘서구 국제관계이론을 이용하면 글로벌 이슈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다원적인 전세계를 설명하는데 서구 이론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티크너와 비버가 전 세계 국제정치학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조직하고 국제관계이론의 다양화를 모색했던을 언급하며(Tickner and Wæver 2009; 2012; 2013), 새롭게 국제정치이론을 구축하는 과정 속에서 비서구 국제정치이론이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국제정치 이론화에 대한 최근의 평가에서, 이제는 몇몇 개념들의 이론적 타당성이 중국 외부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가령 ‘조화세계’나 ‘화평굴기’와 같은 개념은 모두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고 그 후에 학회에 의해 발전되었다. 단지 대학과 싱크탱크들만이 이러한 관념의 형성에 관여했다. 그런데 정치 연구에 대한 정치의 가점된 우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중국’ 국제정치 논쟁에 관여하는 일부 학자들은 정책적으로 연계된 마오주의-마르크스주의 틀 대신 고대 중국 역사와 철학을 선택했다. 그들의 주요 대상 시기는 춘추전국시대인데, 당시 패권을 두고서 중국 내 존재했던 국가들과 정치 고문들과 국가 철학자들과 관련해 남겨진 저술이 ‘국제적’ 관계의 역사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국제관계이론에서 아시아의 역사를 다루기도 하지만, 대체로 주된 사례는 유럽의 장기간의 전쟁사와 동맹사 등이다. 또한 중국의 사례가 활용되더라도 중국의 경험에 근거해 서구와 차별화되는 이론이 나오지는 않았다. 이에 치하이샤(漆海霞)는 공격-방어이론을 언급하면서, 판 에버라가 이론을 만들면서 1789~1990년대 유럽, 미국과 더불어 춘추전국시대 중국을 사례로서 제시하기는 했지만, 중국의 경험이 새로운 학설로 연결되지는 못했음을(漆海霞 2019)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의 부상은 국제관계이론 부분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왔다.

중국의 부상 진행 과정과 현재 서방 이론에 대한 도전은 학자들의 보편적인 반성을 불러일으켰고, 국제관계학자들의 중국 고대 사상을 비롯해 동양이나 아시아의 경험을 거울삼아 분석하는 방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Yan 2011).

옌쉐통은 중국의 부상과 권력 이동이 전쟁 역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서구 학계의 근거는 베스트팔렌체제의 역사적 경험이라고 지적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의 선택은 아시아의 독특한 역사·문화·지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 간의 관계와 같을 수 없다고 한다. 그는 이어 동아시아 역사에서 중국 중심의 위계질서(Hierarchy)가 존재해 서방의 베스트팔렌의 국제질서보다 더 평화롭고 안정된 질서가 존재했다고 지적한다(Kang 2003). 대부분 고대 시대 구조와 상호 작용 원리를 역사적으로 재구성한 것에 그치고 있는데, 옌쉐통(阎学通)이 이끄는 칭화(清华)그룹은 정치적 행동을 위한 지도전략을 발굴하기 위해 고대 중국 철학 문헌을 살펴보았다. 또한 중국의 국제적 관여가 패권 다툼과 제로섬 권력 경쟁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주장도 현재의 텐샤(天下) 재창조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 텐샤에 기인한 의미는 ‘제국’이 무엇을 의미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국의 상상력을 보여준다. 중국 황제, 또는 ‘중국 문명’을 받아들이는

영토와 지역의 통합으로서 세계의 건설을 의미한다. 현대 국제관계 용어로 번역된 텐샤의 개념은 국제 시스템에서 주역들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아이디어와 이상화된 세계 질서의 아이디어를 결합한다. 텐샤에 대한 성찰이 지난 수세기 동안 중국의 역사가들과 철학자들을 사로잡은 반면, 그것의 재창조와 21세기 위상으로의 적용은 자오팅양(赵汀阳)의 글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는 ‘서구’ 국제관계이론에 도전하면서 베스트팔렌 체제를 부정적인 속성들과 연계된 퇴화된 질서라고 파악한다. 즉 국제체제가 무정부상태이고, 개개 국가들은 제로섬 게임의 경쟁을 하며, 윤리적 행동강령의 부재로 전쟁과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코메 2005). 아울러 그는 텐샤를 위계적이지만 안정적인 21세기의 대안 청사진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비록 정치적 관행에 있어서, 주권국가라는 베스트팔렌 체제의 개념이 국제정치에서 중국의 위상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중국은 스스로를 텐샤의 중심이라는 유산에 따라 ‘문명 국가’로 보는 경향이 현대 중국 문헌에서 나타난다.

이들은 중국 역사와 철학에서 파생된 세계 질서에 대한 그들의 비전을 제시하는 모델을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표적인 이론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2 주요 이론들

여러 세대의 중국 학자들이 40여 년 동안 노력하여 중국 특색의 국제관계이론이 구축되어 왔는데, 이론적 혁신 경로를 따라 서로 다른 중국 경험과 중국 지혜를 선택하여 각각 특징적인 중국 이론의 성과를 형성하였다. 특히 국제정치의 관계이론에는 상하이 공생학과, 천하체제이론, 도의적 현실주의, 세계정치 관계이론 등이 대표적이다.

(1) 상하이 공생학과

상하이 공생학과는 중국 특색의 국제관계이론 구축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성과를 냈었다. 김응충과 호수균은 2011년 11월 중국 국제관계 이론 연구용어로 ‘공생’ 개념을 도입했고, 이후 상하이 국제관계학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공생국제체제’라는 이론적 구상을 발전시키며 공생국제체제로서 서방 주도의 국제체제를 뛰어넘을 필요성과 필연성을 입증했다. 이 때문에 경험적 측면에서 상하이 공생학과는 서구가 주도하는 국제체제의 폐해, 특히 대규모 전쟁이 빈발하는 역사적 괴리를 반성함으로써 서방 주도의 국제체제의 실천적 유효성을 부정하고, 동시에 고대 동아시아 국제체제의 성공적 역사경험을 총결집함으로써 21세기 국제관계에 대한 내생적 고대 동아시아 국제체제의 참고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론적 측면에서 상하이 공생학과는 서양 철학의 전통 중 일원론적 사고와 일치성에 대한 선호를 비판함으로써 서방 국제 관계 이론의 과학성을 부정하는 한편, 중국 전통 문화에서 ‘화’와 다원적 포용성에 대한 관심을 강조함으로써 중국 국제 관계 이론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국제 시스템의 근본적 변혁을 강조하기 때문에 상하이 공생학과는 전형적인 혁명주의 전통으로 중국 특색 있는 국제 관계 이론 중 가장 급진적인 분파다.

(2) 천하체제이론

우선 자오팅양의 천하체제 이론의 핵심은 천하주의이다. 그는 ‘텐샤(天下)’ 개념에 대해 이미 오랜 시간 연구해 왔다. 2019년 출간된 그의 책은 주나라를 이상적인 유형으로 제시하고, 그것은 현재의 세계 전체 체계 범위 안으로 확대시키는 것을 제시한다. 그의 이론은 중국 전통문화를 구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미상의 세계관은 실천의 기초가 주조 체계이다. 천하체제이론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우선 전체 이념이다. 천하체제는 독립적이고 주권적이며, 매우 명확한 경계가 있는 정치단위가 아니기 아니며, 현재의 국가 중심의 국제체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개체 단위가 아닌 천하 단위로 질서와 제도를 설계한 것이다.

둘째는 무외 원칙(无外原则, non-exclusivity)이다. 배제 내지 예외가 없다는 것이다. 천하체제의 질서 원칙은 가정의 질서인데, 세계가 하나의 가정이기 때문에 내·외부의 경계를 끊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 하에서 생겨난 분쟁해결 메커니즘, 민중유통 방식 등은 모두 민족국가 체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가정은 자신의 이익을 최소화하고 사랑의 조화를 극대화하는 장소로서, 가정의 질서는 정치 질서의 가장 훌륭한 기초라는 것이다.

자오팅양은 이 원칙이 칸트의 ‘영구 평화’를 넘어 더 안정적인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세계적인 것을 천하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하나는 비세계적인 것을 천하에 대체하는 것이다. 그는 현재의 세계는 ‘비세계(非世界)’라고 한다. 지리적으로는 세계이지만, 제도적으로는 아직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의 제도는 모두 개체의 주권국가를 기초로 하고 기본 단위를 형성하는 것으로, 하나의 파편화된 세계일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비세계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기에 전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적, 무외적인 질서 체계 혹은 제도 체계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이다.

(3) 도의적 현실주의

옌쉐통 교수는 도의적 현실주의(道义现实主义)를 대표한다. 도의적 현실주의란 간단히 말해 국제관계이론의 주류 이론인 현실주의에 중국 선진 사상가의 사상을 결합시킨 것이다. 즉 ‘도의’와 ‘권력’을 결합시킨 것이다. 특히 순자와 같은 사상가의 관점을 융합시켜 세계 지도국의 합당한 권력 성질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기에 도의적 현실주의는 세계의 지도적 지위를 논하는 것이다. 그중 네 가지 관점이 특히 중요하다. 첫째, 세계는 위계질서(等级秩序)로서, 권력의 크기에 따라 대국과 중등국가와 소국으로 나뉜다. 국제정치를 결정하는 것은 대국(大國)이다. 둘째, 국제체계에는 왕권(王权)질서, 패권(霸权)질서, 강권(强权)질서 등 몇 가지 위계질서가 존재한다. 강권질서의 시대는 지났지만 패권질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가장 이상적인 질서는 왕권질서라고 한다. 셋째, 국제체계가 위계질서를 나타내기 때문에 반드시 지도(领导)국가가 존재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 관계의 실체는 지도국가를 놓고 경쟁하는 투쟁(争夺)이다. 넷째, 지도적 지위의 근본적인 요소는 권력이다. 여기에서 중국의 문화가 개입된다. 도의적 현실주의는 도덕 권력(道德权力)과 물리적 권력(物质性权力)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리적 권력은 곧 국가의 물적 힘이고, 도덕적 권력은 합법성을 확립하는 능력이다. 도의적 현실주의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왕권질서의 리더십이란 물리적 권력과 도덕적 권력을 적절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 현재 미국은 기본적으로 패권에 속하지만 중국이 지도적 지위를 획득하려면 물질적 권리와 도덕적 권리를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옌쉐통은 또한 <Leadership and the Rise of Great Powers>에서 도의적 현실주의를 더 설명하여 국가의 정치리더십(political leadership)을 자변으로 삼았으며, 정치리더십의 강약은 국가의 발전과 부상을 설명할 수 있다.

(4) 세계정치 관계이론(Relational Theory)

친야칭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정치 관계이론은 관계성(realtinality)을 핵심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관계성이란 중국 사회가 장기적으로 실천해야 할 배경지식이라고 언급하면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유가사회의 사고와 행동방식의 확장을 제시한다. 관계성과 개인 이성이 대비를 이루며 서로 다른 문화체의 사회질서의 원칙과 실천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서술하고 있다. 서양 주류 국제관계이론이 개인 이성을 이론적 핵으로 명시하고 있거나 내포하고 있다면, 세계정치관계이론은 관계성을 핵심개념으로 한 구조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국제 관계의 세계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다 넓은 의미의 사회 세계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데도 응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관계 이론에는 몇 가지 주요한 아이디어가 내포되어 있다. 첫째, 관계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다. 세계는 관계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세계는 사람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를 관찰하는 기본적인 단위는 관계라는 것이다.

천야청은 서구의 주류 국제관계이론들이 원자 단위로 접근하는 것과 차별화됨을 강조한다. 즉 세계정치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분리된 개체가 아닌 관계라는 것이다. 둘째, 중용변증법(中庸辩证法)을 인식론의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번잡하고 복잡한 관계(纷繁复杂关系)의 전형적인 대표는 음양(阴阳) 관계이다. 중용변증법은 이런 관계를 인식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천야청은 헤겔변증법 역시 세상 만물을 양극으로 나누고, 양극이 서로 작용하여 사물의 발전 동력을 구성한다고 여긴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다만 중용변증법은 이러한 관계를 근본적으로 조화롭다고 여겼으나, 헤겔변증법의 양극단은 대항하는 것으로 본다고 주장한다. 중용변증법은 조화를 중시하는데 있어서 결코 모순과 충돌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갈등과 충돌은 조화를 구하기 위해 출현하는 필요한 실천 형태라고 보는 것이다. 셋째, 관계성 논리이다. 행동은 관계에 의해 움직이며, 관계는 신분을 확인하고, 신분은 이익을 정하고, 이익은 행동을 움직이게 한다. 공자가 말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도 성공시키라(达己达人)”는 것은 이익을 관계성 이익을 본 것이지, 일방향적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관계를 강조하면서, 사회세계에서 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강조하며, 본원적 상태란 조화이고, 중용증법은 조화 과정이란 것이다. 그리고 ‘관계선택(关系选择)’, 즉 관계가 행동의 판단을 결정한다는 것이 관계 이성의 이론적 근거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이론들은 이론의 구조, 사유 방식과 구체적인 관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중국의 전통사상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두 중국 전통문화사상을 활용하고 있다. 주나라의 무위 체계, 도덕의 중시, 달기달인 등 선현의 사상을 이용해 현대화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 전통문화에서 출발한 이론화 과정은 서구의 이론과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다.

둘째, 서구의 국제관계이론을 배제하지 않고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론이 구축 과정에서 서구 이론과 경쟁하기도 하고, 융합하기도 하며, 보완하기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천하체계가 국가중심의 국제체계와 대척점에 놓고, 있지만, 대체로 서구의 이론에 대한 지식과 중국의 전통문화사상을 조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이론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궁극적으로는 서구의 국제관계이론을 대체하기 위한 이론화 작업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중국이 이론화 작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인 부분도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는 전 세계의 국제 관계이론 체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중국의 학자들은 중국 국제 관계이론이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일시적인 효과와 즉각적인 효과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면서, 장기적인 인류 지식의 축적, 발전과 창조를 추구하자고 하는 것이다(秦亚青 2019).

5. 결론

모든 과학 이론의 발전 과정과 마찬가지로 중국 특색의 국제정치 이론도 무에서 유를 창조했고 이제 보완을 해 나가는 이론적 진화를 실현해야 한다. 현 단계에서 나타난 중국 특색의 국제 관계 이론의 성과는 중국의 국제정치이론의 개발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지만 지식 구축의 사고방식에 있어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들 각자의 부족한 점이 있다. 이 세 가지 중국 이론도 상호 협동과 공동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상하이 공생학과는 서방이 주도하는 현 국제 시스템과 중국의 경험에 기초한 공생 국제 시스템 중 누가 더 나은지를 증명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국제 시스템의 이러한 근본적인 변혁을 실현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여 국제 관계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상하이 학과 학자들은 이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상하이 학파의 학자들은 상호 연결 문제 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을 해냈지만, 체계의 전환이라는 중대한 과정의 실현 방식, 동력 원천, 운영 체제 및 구체적인 과정을 언급하지 않았다. 과거 동아시아 공생체계가 공생국제체계연구에 경험적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과거의 그 국제체계가 어떻게 다시 나타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 특히 상하이학파의 동아시아 공생국제시스템에 대한 역사연구는 이론과 실천의 이중적 패러독스가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고대 동아시아 체계가 형성되고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전제조건 및 구현된 특징(任晓 2003)은 상해학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서방국제체계의 특징(특히 실력에 의해 형성된 사실상의 불평등한 국가 간 관계, 서구문명에 대한 편애, 그리고 문명 기반)과 일치한다. 실천적 측면에서 보면 고대 동아시아 공생체계의 전제와 특징 또한 이 독특한 고대지역 국제관계 패러다임을 21세기 다원적 문명과 차별적 신분조건에서 국제실천을 통한 재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실천 경로에 대한 확실한 담론을 잃으면 이론의 공상에 빠질 수 있고, 동아시아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비판적 반성이 부족하면 상하이학파가 대립각을 세우게 될 수도 있다.

현실주의 성향을 띤 도의적 현실주의는 현실주의 분석틀과 중국 고대 사상 간의 상호 관계를 조화시키는 것이다. 도의적 현실주의는 국제리더십이라는 변수를 도입하고 체계적인 논술을 함으로써 핵심 개념의 난맥상을 해소했다. 그러나 도의적 현실주의는 이론적 구성에서 중국의 고대 사상과 현대의 국제관계에 대한 시간과 공간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곧바로 중국 고대 사상에서 추출된 중국 원소의 현실 유효성 부족으로 이어진다. 특히 도의적 현실주의는 국제 시스템의 변천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는 현실주의적인 분석의 틀에서 출발하는 반면, 대국의 부상과 강대국의 대외행위 논리 등을 동일시하여 서로 다른 배경지식을 가진 행위체가 실천에서 따를 수 있는 상이한 행동 패턴을 간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의적 현실주의는 이론과 실천 모두에서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 이론적으로 볼 때, 대국의 부상과 수성이 모두 국제리더십을 목표로 하고, 같은 방식으로 국제리더십을 획득한다면, 선진사상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고대사상을 발굴할 필요성은 충분하지 않다. 사실주의의 틀은 문제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관계 이론연구에 대한 중국의 전통사상의 기여를 강조하려면, 국제관계 이론 연구의 틀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 실천적 측면에서 보면 도의적 현실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중국 외교전략의 근본적 전환을 예견하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Yan 2011) 중국 외교와 미국 외교의 차별성을 설명하기 어려워 국제 리더십의 분석 틀이 현실과 괴리될 위험이 있다.

국제정치의 관계이론은 '관계성'이라는 중화문화 배경지식에서 추출한 핵심 개념이 관계이론에서 비사회구조적 특징과 관계이론 전반에서 형성되는 구조주의적 입장 사이에 모순이 된다. 이 모순은 관계이론의 내재된 논리적 일치성을 위협한다. 관계이론이 형성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구조주의의 최신 성과를 받아들임으로써 사회 구조에 관한 구조주의의 기본 주장과 언어 체계를 계승하게 되었다. 관계이론은 중국적 요소가 이론적 연구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관계이론을 서구 이성의 대립각으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인이 세상을 인식하는 독특한 방식, 세계에 대한 중국인의 독특한 인식, 그리고 국제사회에 중국인이 녹아드는 독특한 과정을 강조한다.

그러나 관계 이론은 중국과 서양 문화를 각각 이성적 사고와 관계적 사고의 산물로 단순화시켰는데, 이는 사회의식의 사회 구축 과정을 소홀히 한 것일 뿐 아니라 관문을 초래하였다. 관계성은 중국 사회의 구체적인 상황과 중국 사회가 역사 과정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벗어나는 영원한 지혜가 됨으로써 사회 구축의 특성을 잃게 되었고, 또한 사회의식이 사회 상호 침투와 상호 통합의 가능성을 부정함으로써 서구 사상의 다원적 특징에 눈을 감게 되었고, 더욱이 관계성을 다른 사회 사상과 통약할 수 없는 고립물이 됨으로써 그 보편적인 의미를 잃게 되었다.

이 밖에도 중국 특색의 국제관계 이론 건설의 단계적 성과에는 일련의 공통된 문제들이 존재한다. 우선 중국 학자들 중 일부는 서양 국제 관계 이론의 학술적 가치를 인정하며, 중국 특색의 국제 관계 이론을 서방 이론의 유익한 보충으로 여긴다. 또 다른 학자들은 서구의 국제관계 이론은 학리적으로 틀릴 뿐 아니라 실천에도 해롭다며 서구 이론을

중국 특색의 국제관계 이론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 이론 건설 초기에는 중국 학자들이 이론의 결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차이점은 제한적이었다. 이론의 진척에 따라 서로 다른 이론의 역할 지정은 중국 특색의 국제 관계 이론의 구축 실천을 서로 다른 성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중국 이론의 성과 측정에 영향을 주게 되어 중국 특색의 국제 관계 이론의 발전 방향에 영향을 줄 것이다. 둘째, 중국 학자들은 중국 특색의 국제 관계 이론을 구축하는 전략이 다르다. 일부 학자는 서구 국제관계 이론을 기본 틀로 삼아 중국 특색의 개념을 채택하고, 다른 학자는 서구 이론의 틀을 버리고 순수 중국 경험으로 중국 이론을 구축하기도 한다. 앞선 전략은 이론의 중국 특성 부족과 중국 경험과 서방 이론의 틀의 호환성 문제에 직면했고, 그 다음 전략은 이론적 성과에 대한 체계성과 과학성의 결함이 있었다. 중국 경험과 서방 이론의 관계를 어떻게 균형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중국 특색의 국제 관계 이론 건설이 장기적으로 직면해야 할 공통적인 문제이다. 셋째, 중국의 특색 있는 국제관계 이론 구축 실천에는 중국 중심주의 경향이 보편화되어 있다. 인식론적 자기중심주의의 경향은 서로 다른 배경지식 아래 지식구축 실천이 공유하는 특성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서 동질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모두 제한된 개인의 경험에서 출발하여,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적 경험을 서로 다르게 결합하여 점차 세계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을 형성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국제정치 이론 연구의 중요한 성과는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존재해 온 중국 고유의 국제정치이론을 개발했다는 것이고, 이는 비(非)서구 국제정치이론 개발의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홍규, (2010) “중국 국제관계이론의 수용과 발전 연구 소고(小稿),” 『한국정치연구』 19(2), 1~20.
- Arlene B. Tickner and David L. Blaney, eds. (2013), *Claiming the International*, Routledge.
- Chan, Gerald, (1999) *Chinese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Relations: A Framework for Analysis*, New York: St. Martins Press.
- Chan, Gerald. (1997). "International studies in China: origins and development." *Issues & Studies* 33(2), 59.
- Chen, Xu. (2012). "Jinnian guonei Makesizhuyi guoji guanxi lilun yanjiu pingshi" (Notes on Marxist IR research in China). *Shehuizhuyi yanjiu* 3, 130-9., 136-138.
- Hoffmann, Stanley, (1987) *Janus and Minerva: Essays in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Politics*, Boulder: Westview Press.
- Kang, David C, (2003) "Hierarchy, Balancing, and Empirical Puzzles in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Security*, Vol.28, No.3, pp.165~180.
- Kang, David C. (2003) "Getting Asia Wrong: The Need for New Analytical Framework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7, No.4, pp.57~85.
- Peng, Lu, (2019) "Chinese IR Sinocentrism Tradition and Its Influence on the Chinese School Movement" *The Pacific Review*, Vol. 32, Issue 2, pp.150~167.
- Qin, Yaqing. (2009).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 China." *International Studies* 46(1+2), 185-201
- Qin, Yaqing. (2009).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 China." *International Studies* 46(1+2), 185-201
- Tickner, Arlene B. and David L. Blaney, eds. (2012), *Thinking International Relations Differently*, Routledge,
- Tickner, Arlene B. and Ole Wæver, eds. (2009), *International Relations Scholarship around the World*, Routledge,
- Wang, Jisi. (1994)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study of Chinese foreign policy." In Thomas W. Robinson and David Shambaugh (eds.), *Chinese Foreign Policy: Theory and Practice*. Oxford: Clarendon Press.
- Yan, Xuetong, (2011) *Ancient Chinese Thought, Modern Chinese Power*, Princeton University Press.
- Yan, Xuetong, (2014) "From Keeping a Low Profile to Striving for Achievement,"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 7, No.2, pp.153~184.
- Zhao, Tingyang. (2005) *Tianxia tixi: shijie zhidu zhaxue daolun* (The Tianxia System: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a

World Institution). Nanjing: Jiangsu Education Press.

阎学通. (2006) 《国际关系理论是普世性的》, 《世界经济与政治》第2

阎学通. (2018) 改革开放40年的国际关系学术研究 <国际政治科学> 第4期

任晓. (2013) 《论东亚“共生体系”原理——对外关系思想和制度研究之一》, 《世界经济与政治》第7期, 9~14.

张锋 (2002) “中国国际关系研究中的清华路径”, 《国际政治科学》第4期, 125~156.

秦亚青. (2019) “中国国际关系理论的发展与贡献” 《外交评论:外交学院学报》第6期

漆海霞. (2019) “当前国际关系理论创新的途径” 《国际关系研究》第4期